

【 2018 공인노무사 합격 유근종 】

| | | | | |
|-----------|----------|----------|----------|-------------|
| 1 차 시험 점수 | 노동법 | 사회보험법 | 민법 | 선택과목(경영학개론) |
| | 70 점대 초반 | 70 점대 초반 | 60 점대 중반 | 60 점대 중반 |
| 2 차 시험 점수 | 노동법 | 인사노무관리론 | 행정쟁송법 | 선택과목(경영조직론) |
| | 264.57 | 185.01 | 177.97 | 179.45 |
| | 총점 | 807 | 평균 | 59.77 |

주제1. 수험 시작 동기와 수험 기간

1. 수험시작 동기

제가 처음 노무사 공부를 시작하게 된 것은 남들처럼 거창하거나 아주 특별한 계기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저는 군대에서 수능 공부를 하고 전역 후에 대학교에 입학한 특이한 케이스였고, 그래서 1학년부터 일찍 진로에 대한 고민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처음 노무사라는 직업은 2학년 학부 강의 중 직업과 진로라는 교양 수업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학생들의 진로 탐색을 도와주는 수업이었는데, 교재 맨 후반부에 여러 분야로 취업한 선배들의 후기 중에 '공인 노무사'로 활동 중인 선배의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글에는 노무사라는 직업이 어떤 일을 하는지, 수험 기간 등이 소개되어 있었습니다. 이후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탐색하였고 준비해야겠다고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2. 수험기간

수험 시작은 2학년 2학기부터 시작하였습니다. 이 시기에 학교 다니면서 민법 기본이론을 들었고 이후 겨울방학부터 2차 1기 수업을 따라 갔습니다. 그리고 3학년 1학기에도 학교와 병행하면서 1차를 중심으로 공부했고 2차는 0기만 인터넷 강의를 수강하였습니다. 1차 합격 후 2차는 제대로 준비되지 않아 경험으로 시험장에 갔고, 3학년 2학기에는 12학점만 수강하면서 2차 0기 커리큘럼을 따라 갔습니다. 그리고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신림 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합격을 축하드립니다! 현직에서 더욱 빛나는 노무사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 노무사단기

그래서 수험기간은 총 대략 24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주제2. 나만의 학습 방법

1. 학습계획 수립법

저는 최대한 효율적으로 수험 기간을 이용하기 위해 한 학기만 휴학을 하였고 그 이전까지 모든 과정을 학교와 병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 그대로 '생유예' 즉, 동차 시절에 2차에 대해 맛보기 정도만 겪은 수준이었습니다. 0기 시절에도 학교와 병행하였기에 본격적으로 2차 노무사 시험에만 매진할 수 있었던 시기는 1기부터였습니다. 현재 노무사 수험생들의 수준을 고려할 때 합격권의 많은 노무사 수험생들은 동차 시기에도 2차를 놓지 않고 0기부터 3기까지의 과정을 밟았기에 저는 저의 상황에 맞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저는 소위 말해 '구멍이 나는 과목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강사님들도 그런 말들을 자주 해주셨습니다. 가장 자신 있는 특정 과목에서 아주 높은 점수를 획득하기를 바라는 것은 확률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모든 과목에서 60점을 받는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러한 목표 하에서 저는 그에 맞게 모든 과목을 공평하게 시간 분배를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하루에 자습을 10시간 한다고 한다면 노동법의 경우 3.5, 행정쟁송 2.2, 인사노무관리 2.2, 경영조직 2.2 비율로 배분하였습니다. 학습 분량 배치는 모의고사를 기준으로 하루의 분량을 정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순환별로 다르기 때문에 시기별 학습과정에서 서술하겠습니다.

2. 시기별 학습 과정

(1). GS 0기

- 0순환에는 제가 학교를 병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복습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크게 욕심내지 않았고 수업만 밀리지 않고 충실히 따라가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합격을 축하드립니다! 현직에서 더욱 빛나는 노무사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 노무사단기

1). 노동법

노동법의 경우 기본적으로 인터넷 강의를 듣고 수업 복습을 충실히 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복습할 때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으면서 중요 개념의 정의를 암기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항상 판례집을 들고 다니면서 학교 수업 시작 전 10분~15분 정도의 시간 혹은 수업과 수업 사이에 남는 애매한 시간에 판례를 외웠습니다.

2). 행정쟁송법

행정쟁송법의 경우에는 사실 0기에 어떻게 공부했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공부하는데 애먹었던 과목입니다. 일단 용어가 너무나 낯설었기 때문에 과목 전체가 어렵게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낯선 개념이나 용어의 정의를 신경 쓰면서 읽었고 실제로 내가 행정소송을 진행한다고 생각하면서 책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일단 외우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저는 이해와 암기가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이해가 도저히 되지 않는 부분은 일단 외웠습니다. 예를 들어 처음에 기속력과 기판력에 대해 설명을 들을 때 정말 무슨 말인지 하나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계속 읽고 이해해보려고 노력하였지만 제대로 구분할 수 없었고 그래서 저는 그냥 각각의 정의와 차이점 등을 그냥 외웠습니다.

이렇게 암기하면 당연히 바로 까먹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다음 번에 다시 볼 때에는 이전보다 익숙해지게 되고, 신기하게도 이해의 속도가 그냥 눈으로 읽고 넘어갔을 때보다 빠르게 향상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0기에서 행정쟁송은 '익숙해지기' 위한 노력의 과정이었습니다.

3). 인사노무관리

인사관리는 '추상적이다'라는 이미지가 강했기 때문에 0기에 중점을 두었던 것은 '개념 정의 암합격을 축하드립니다! 현직에서 더욱 빛나는 노무사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 노무사단기

기'였습니다. 답안을 작성한다고 상상하였을 때 가장 먼저 쓸 수 있고 써야 하는 것이 바로 문제에서 제시한 핵심이 되는 개념에 대한 정의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학부 수업에서 교수님들께서 항상 개념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강조하셨기 때문에 개념을 명확히 이해하고 암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0기에는 강의에 대한 기본적인 복습과 더불어 용어나 개념에 대한 정의를 암기하는 시기였습니다. 물론 용어/개념의 정의는 휘발성이 강해 금방 잊어버리지만 이 시기에 암기했던 것이 이후의 공부에서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4). 경영조직

경영조직 역시 인사관리와 마찬가지로 강의에 대한 기본적인 복습과 더불어 용어/개념 정의에 대한 암기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2). GS 1기(평일반 수강)

-1기부터 본격적으로 신림 생활을 하면서 평일반을 수강하였습니다. 1기부터 본격적으로 암기를 시작하였습니다. 사람마다 스타일이 다르겠지만 저는 2기부터 암기하는 것은 너무 불안했고 자신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1기부터 치열하게 암기하였습니다.

-1기 평일반을 수강하시는 분들께서 가장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 복습 방식입니다. 저 또한 공부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가장 고민이 많았는데, 저는 평일반 수업이 진행될 때에는 수강하는 과목만 복습하였습니다. 모든 과목을 조금씩 전부 공부하고 싶은 욕심이 있었으나 현실적으로 듣고 있는 수업을 따라가기가 버거웠기에 수강하는 과목 복습에 집중하였습니다.

1). 노동법

평일반을 수강하면서 그날 그날의 수업을 철저하게 복습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매주마다 있는 모의고사에 대비하기 위해 분량을 나누고 공부하였습니다. 그리고 판례 암기에 가장 큰 합격을 축하드립니다! 현직에서 더욱 빛나는 노무사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 노무사단기

시간을 투입하였습니다.

2). 행정쟁송법

제가 수강하였던 행정쟁송 수업에서는 매일 매일 쓰기 시험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진도 나간 범위에서 중요한 논점들을 열심히 외우면서 공부하였습니다. 0기에서는 이해가 가지 않았거나 낯설었던 용어나 문구들에 대해서 이해도가 높아졌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3). 인사노무관리

0기와 마찬가지로 개념에 대한 정의를 반복적으로 암기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읽되 A급 논점에 대해서는 암기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매일 보는 간단한 퀴즈에서도 단순히 묻는 말에 답하려고 하기보다는 목차를 최대한 풍부하게 작성하려고 애썼습니다. 또한 중요한 그림이나 그래프는 답안지에 현출하고자 꼭 한번씩 손으로 그려보면서 공부하였습니다.

4). 경영조직

개인파트와 집단파트까지는 수월하게 공부하였는데 조직파트에서 많이 애를 먹었습니다. 나중에 조직파트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생각에 조직파트에 좀더 신경을 썼습니다. 인사관리와 마찬가지로 중요한 그래프나 그림을 꼭 한번씩 손으로 그려보면서 복습하였습니다.

* GS2기 개강 전

이 시기를 잘 보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대략 2주 조금 넘는 시간이 주어지는데 이 시기에 그동안 배웠던 내용을 총 복습하면서 어느 정도 다져놓아야 2기를 제대로 소화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노동법은 A,B급 판례를 중심으로 외웠습니다. 인사관리는 전체적으로 기본서를 1회정도 꼼꼼히 읽었습니다. 행정쟁송은 0기 1기에서 다뤘던 논점들을 다시 한번 써보았고 경영조직은 개인파트 1회독, 조직파트 2회독을 하였습니다.

합격을 축하드립니다! 현직에서 더욱 빛나는 노무사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 노무사단기

(3). GS 2기(주말반 수강)

1). 노동법

2기부터는 서브노트를 보면서 서브노트에 단권화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기존에 익숙하였던 기본서에서 서브노트로 변경하면서 조금 어려움이 있었지만, 두꺼운 기본서는 심리적으로 압박감도 있었고 시험직전에 볼 수 있는 책을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에 서브노트를 중심으로 갔습니다. 조금 부족한 부분은 기본서를 보면서 옮겨 적었고 최신판례 역시 서브노트에 오려 붙여갔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스케줄은 일요일에 보는 모의고사 범위를 기준으로 하루 분량을 분배했습니다.

2). 행정쟁송법

본격적으로 사례형 문제를 접하게 되면서 논점을 일탈뿐만 아니라 논점을 찾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가 발생하여 굉장히 애를 먹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례집을 이용하여 논점 찾는 연습을 하였습니다. 실전처럼 문제를 푸는 것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논점을 찾고 목차를 잡는 연습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3문제 중에서 1문제는 꼭 논점일탈이 있어 상당히 스트레스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사례집에 단권화 작업을 하였습니다. 매주 보는 모의고사의 모범답안을 사례집에서 해당되는 논점에 붙여서 문제와 모범답안을 연결시켜 공부하였습니다.

3). 인사노무관리

기본적으로 토요일 모의고사를 기준으로 공부를 하였습니다. 다만 1기와 달라진 점은 공부하는 부분을 단순히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답안지를 현출할 때 어떻게 할지 고민하면서 읽었습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 드리면 인사관리에서 빠질 수 없는 부분이 이슈파트인데, 이 파트를 단순히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주제가 나왔을 때 어떻게 서론이나 결론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고민하면서 공부하였습니다.

4). 경영조직

점점 암기에 대한 압박이 커지는 시기였습니다. 특별한 방법이 없었습니다. 모의고사 기준에 맞춰 열심히 암기하는 것 밖에 없었습니다.

합격을 축하드립니다! 현직에서 더욱 빛나는 노무사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 노무사단기

(4). GS 3기(주말반 수강)

1). 노동법

이 시기에는 서론을 좀더 깔끔하게 작성하기 위해 신경을 썼습니다. 공부를 하면 할수록 서론에서 내가 논점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 여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서론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내용으로 해당 논점과 관련 있는 법조문, 문제가 되는 사항, 후술할 내용 이 세가지를 반드시 간결하게 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2). 행정쟁송법

3기에는 0기부터 2기까지 시험 본 논점을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추가되는 표현 또는 추가되는 판례를 사례집에 필사하면서 계속해서 같은 내용을 반복적으로 공부하였습니다.

3). 인사노무관리

공부 방식은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조금 달라진 것은 한 번에 복습하는 범위가 넓어지면서 좀더 입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경영조직에서 사용되는 이론들을 서론이나 결론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계속 고민했고, 확보 개발 평가 보상 유지 이직관리에서 사용할 수 있는 키워드를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어떤 문제가 나와도 서론에 활용할 수 있는 이론들을 연습용 시험지 2페이지에 정리하였습니다.

4). 경영조직

3기가 됐는데도 여전히 조직파트 암기가 제대로 되지 않아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끝까지 놓지 않고 계속 반복하였습니다. 경조는 정말 답이 없고 무식하게 열심히 하는 것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주제3. 과목별 학습 방법 및 고득점 팁

합격을 축하드립니다! 현직에서 더욱 빛나는 노무사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 노무사단기

-기본적으로 모든 과목을 공부할 때 암기 혹은 이해가 잘 안됐거나 혹은 모의고사에서 제대로 현출하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반드시 체크표시를 하였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덩이리가 큰 부분이라면(예를들어 하나의 논점) 포스트잇을 붙여 표시하였습니다. 이는 전반적으로 내가 어느 부분이 부족한지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도구가 되고 다시 한번 복습할 때 강약 조절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시간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강약조절을 매우 중요합니다.

1. 노동법

노동법은 가장 기본이 되는 부분이 되면서 중심이 되는 부분은 결국 판례입니다. 그러므로 판례 암기는 매우 중요하기에 판례 암기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판례집을 들고 다니면서 계속 중요 키워드들이 익숙해지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판례를 답안지에 현출할 때 여러 요소가 제시되는 판례는 반드시 넘버링을 하여 내가 제대로 암기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합격권의 점수를 받기 위해서는 사안의 포섭이 중요합니다. 사안의 포섭은 최대한 풍부하게 작성하고자 노력하였고 목차를 잡아 분설하거나 최소한 넘버링을 통해 풍부하게 작성하는 연습을 계속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문제의 소재입니다. 저는 문제의 소재 연습을 0기부터 시작하였는데 3기가 되어서야 제대로 감을 잡고 쓸 수 있었습니다. 문제에서 제시한 논점에 대한 이해도가 가장 잘 드러나는 부분이 결국 서론입니다. 우리 노무사 시험 채점 방식은 소위 '느낌 점수' 방식이기 때문에 첫인상이 매우 중요합니다. 문제의 소재에서 논점을 제대로 짚어내고 관련 법 조항까지 덧붙여 쓰면 긍정적인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반복적인 모의고사를 통해서 의식적으로 간결하고 명확한 문제의 소재를 작성하는 연습을 하신다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 행정쟁송법

행정쟁송에서 저희가 다루는 논점은 43개~46개 정도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각 논점에 대한 판합격을 축하드립니다! 현직에서 더욱 빛나는 노무사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 노무사단기

례와 학설 등을 철저하게 암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까지는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도달하지만, 문제는 논점일탈 입니다. 행정쟁송은 논점일탈이 가장 많은 과목인데, 아마 단순히 해당 논점을 암기하는데 그쳐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2기에 큰 어려움을 겪었는데 방법은 사례집을 통한 논점 찾기 연습입니다. 한 두번 풀어보더라도 틀렸던 논점은 시간이 지나서 다시 풀어보면 또 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부과정에서 논리 회로가 잘못 형성된 경우에 반복적인 실수나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논점을 물어볼 때 문제에서 반드시 언급되는 키워드를 파악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송'은 문제에서 반드시 민사소송과 행정소송 두 개가 나옵니다. 반면에 '병합'은 행정소송 하나만 등장하게 되죠. 이렇게 순간적으로 헛갈릴 수 있는 부분들은 문제의 형태를 기억하는 방법이 좋습니다.

3. 인사노무관리

인사관리는 흔히 굉장히 범위가 넓고 추상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인사관리를 공부하면서 추상적이라고 느끼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암기 해야 하는 부분이 노동법이나 경영조직에 비해 훨씬 적어 공부하기 수월한 과목이었습니다.

인사관리를 막연하게 접근하지 않는 방법은 바로 '외워야 할 부분을 확실하게 외우는 것'입니다. 암기 해야 할 부분을 확실하게 암기하여야 그 외에 기본서에서 벗어나는 최신 트렌드와 관련된 문제를 제대로 쓸 수 있는 역량이 생깁니다. 암기해야 할 부분은 강사님들이 강조하고 알려주시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기본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기본서에 없는 문제가 나왔을 때, 마치 퍼즐조각을 맞춘다는 생각으로 내가 암기하고 있는 내용을 적절하게 배치하고 덧붙이면 됩니다.

이렇게 접근하면 인사관리에 대한 추상적인 느낌을 지울 수 있습니다. 추상적으로 느낀다는 것은 인사관리와 관련된 모든 이슈를 대비하고자 한다는 마음 때문인데 그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가 나와도 적절하게 그럴듯하게 쓸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합니다. 단, 그 내용은 기본서에 나오는 용어와 표현을 이용해서 써야 합니다. 또한 기본서를 공부할 때 각 개념이나 이론을 다른 부분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면서 읽어야 합니다. 거창하게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합격을 축하드립니다! 현직에서 더욱 빛나는 노무사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 노무사단기

예를 들어 인사관리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이론 중에 '인적자본 이론'이 있습니다. 이 이론은 지식 경영 이슈 서론에서도 활용이 가능하고 고령화 이슈에서 고령인력의 장점 등에도 녹여 쓸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기본서를 공부할 때 어떻게 활용할 것인 생각하면서 읽는다면 새로운 이슈에도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길러질 수 있습니다.

또 덧붙이자면 소위 '확개평보유이'를 묻는 50점짜리 문제에 대비하기 위하여 각 파트에서 활용할 수 있는 키워드를 정리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확보에서는 1종오류&2종 오류 내용 및 그래프를 간단하게 언급할 수 있고 개발에서는 Action learning를 언급할 수 있죠. 이러한 내용을 바로 바로 적절하게 꺼내 쓸 수 있도록 a4용지 3장정도 분량으로 정리해 놓고 항상 모의고사 직전에 보았고, 실제 시험에서도 직전에 보았습니다.

4. 경영조직

경영조직은 모든 과목이 그렇겠지만, 정말 성실하고 꾸준히 공부하는 것만이 답인 것 같습니다. 경영조직과 관련하여 유명한 말이 '웃으면서 시작해서 울면서 시험장 들어간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암기량이 상당합니다. 그러므로 성실한 자세로 참고 인내하면서 암기하는 방법 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주제4. 후배 예비 공인노무사들을 위한 학습 팁 및 하고 싶은 말

1. 효율적인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하지 말고 빈도수를 늘리려고 노력할 것

공부를 할 때에 대부분은 수험생들은 '공부방법'을 찾고자 노력합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는 모두 어떻게 공부하면 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약간의 팁이나 도움이 되는 방법들은 있지만 그것은 수업을 들으면서 강사님들이 친절하게 알려주시죠.

저는 공부 방법을 찾으려고 하기 보다는 '빈도수'를 늘리는데 집중하라고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합격을 축하드립니다! 현직에서 더욱 빛나는 노무사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 노무사단기

반복적으로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 빈도수를 늘리는 것이 결국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됩니다.

2. 슬럼프 극복방법 및 멘탈관리

저는 매일 매일 고비가 왔습니다. 보통 밥을 먹고 난 이후에 공부가 너무 하기 싫어지는 고비가 왔는데 이때 이 고비를 잘 넘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고비만 잘 넘기면 또 다시 공부에 속도가 붙는 순간도 오기 때문이죠. 저는 이 고비를 넘기기 위해 '일기'를 썼습니다. 일기라고 해서 거창하게 길게 쓸 필요 없이 짧게 짧게 내가 왜 이 공부를 하고 있는지, 나는 할 수 있다는 등의 의지가 담긴 글을 쓰는 것입니다. 이게 효과가 굉장히 좋았고 저는 일기를 쓰는 습관이 합격시켜주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공부가 잘 안될 때 의지를 다지는 글을 쓰면서 정신이 환기되는 효과뿐만 아니라 이러한 내용의 글이 쌓이면서 그것을 읽는 것만으로도 다시 힘을 낼 수 있는 큰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3. 모의고사에 절대 일희일비 하지 말 것.

모의고사는 시험 합격을 위해 정말 필수적인 부분이지만, 반대로 이것에 너무 연연하다 보면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모의고사를 잘 봐야겠다는 마음가짐을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적당한 압박과 책임감은 공부를 할 수 있게 만들어 주기 때문이죠.

그러나 모의고사 성적에 너무 연연하다 보면 생각보다 점수가 잘 안 나왔을 때 절망을 하게 되고 부정적인 생각으로 공부에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저도 실제로 노동법 모의고사 등수가 순환이 지날수록 오히려 떨어져 굉장히 크게 낙심한 적이 있었습니다. 공부는 계속 열심히 하면 성적이 올라야 하는데 오히려 떨어지니까 스스로에 대한 자질을 의심하게 되고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시기를 잘 견디고 합격 할 수 있었던 것은 '모의고사는 잘 못 봤지만 오늘 나온 논점이 실제 시험에서 나온다면 합격권 이상의 답안을 작성할 수 있도록 공부해야겠다'는 마음가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모의고사도 그렇고 실제 시험도 그렇고 별게 아닙니다. 내가 아는 논합격을 축하드립니다! 현장에서 더욱 빛나는 노무사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 노무사단기

점, 내가 풀어 본 논점을 제대로 잘 쓴다면 점수가 잘 나오는 것이죠. 그러므로 모의고사 점수가 잘 안 나왔을 때 내가 제대로 알지 못한 논점을 찾을 수 있어서 다행이고 이것을 채워서 실제 시험에서 나오면 합격권 이상의 답안을 작성할 수 있도록 공부하는 식의 접근이 중요합니다.

4.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합격 수기는 꼭 한번 쓰고 싶었습니다. 그 이유가 절대로 수험생들에게 내가 얼마나 고생했고 어떻게 공부했는지 과시하고 하는 허영심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스스로 열심히 살아온 시기에 대한 기록을 남기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솔직하고 담백하게 썼습니다. 혹시라도 불편함을 느끼시는 부분이 있었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저의 글솜씨가 부족한 것이니 너그러이 이해해주세요. 저는 이 글을 읽는 수험생 분들의 앞으로 공부 과정에서 티끌만큼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공부에 왕도는 없습니다. 제가 쓴 공부 방법이나 시기별 계획 등은 버릴 것은 버리고 취할 것은 취하는 단순한 참고용으로 봐주시면 좋습니다. 사실 우리는 어떻게 공부하면 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일 뿐이죠. 그래서 공부 방법 보다는 힘들어도 꾸준히 밀고 나갈 수 있는 멘탈관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공부하실 때 힘든 고비가 반드시 오겠지만, 잘 이겨내시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